

SM, 카카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SM 3.0 시대 가속화!

- SM 3.0 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2,172 억원 조달하고 공격적 투자에 나설 것
- SM의 강력한 IP와 카카오가 보유한 다양한 플랫폼, AI 기술 융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2월 7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3자 간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카카오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SM과 카카오는 2021년 5월부터 이어져 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해피엔딩으로 끝맺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 추구에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장기적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인 사업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SM은 금일 공시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신주 123만주를 1주당 91,000원(2월 3일 종가)에 발행하여 1,119억원을 조달하고, 이와 함께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전환가격 주당 92,300원)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전환후 기준 SM 지분율 9.05%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

3사는 이번 투자 및 사업협력을 통해 서로가 강점을 가진 사업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전략적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한 K-POP 아티스트를 공동 기획하고,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각 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하였으며, 글로벌 음반, 음원의 제작 유통 등 양사의 음악 사업에 대한 다각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SM의 강력한 IP와 카카오가 보유한 다양한 플랫폼, AI 기술을 융합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IP 수익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카카오가 사업자로 참여해 건립 예정인 서울 아레나를 활용해 국내 공연 문화 생태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M은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을 SM 3.0 전략 추진을 위한 글로벌 음악 퍼블리싱사업, 글로벌 사업 확대, 국내외 레이블 인수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2월 3일 발표한 SM 3.0 전략의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M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는 "카카오와의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SM이 글로벌 선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